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4월 1일 (음력 2월 26일) 월요일

광주·전남 자율개선 탈락 5개대학 '생존 시험'

조선대, 4개 단대-10개 학과 축소, 내부 반발 여전

순천대·남부대·송원대·세한대 역량 강화안 제출

호남 7곳 중 3곳 생존할 듯 내부 결속다지기 숙제

지난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서 탈락, 정원 10%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강화대학' 으로 분류된 광주·전남권 5개 대학이 자체 구조조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측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대전제로 정원 124명을 줄이고, 기존 17개 단과대학을 13개로, 86개 모집단위를 76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사구조 개편안을 확정, 최근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단대의 경우 기존 인문대와 외국어대를 합친 '글로벌인문대학' 과 법대와 사회대를 하나로 통합한 '법사회대학', 자연대와 보건과학대를 통합한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미술대와 체육대를 융합한 '미술체육대' 를 신설키로 했다.

학과 단위에서는 영어과가 영어영문과로 흡수 통합됐고, 한문학과,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물리학과는 학과 단위 모집정원이 사라져 사실상 폐과됐고, 수학 전공,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가구도자디자인 전공 등은 정원이 축소됐다.기존 법대 소속이던 경찰행정학과는 정원 변동 없이 공공보건안전대학으로 이동했다.

대학 관계자는 "연초부터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학과·단대별 설명회, 학생회 면담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로 특히 국가정책과 지역사회 실정, 취업률, 학생수요 등을 넉넉히 반영했다"며 "이젠 대학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행정과 재정분야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호남권 7개 대학 중 광주·전남권인 남부대, 송원대, 세한대, 순천대도 특성화 전략을 앞세운 자체 역량강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의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몸집 줄이기와 특화 전략, 융복합 학사 개편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 모집단위 축소와 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둔 지속가능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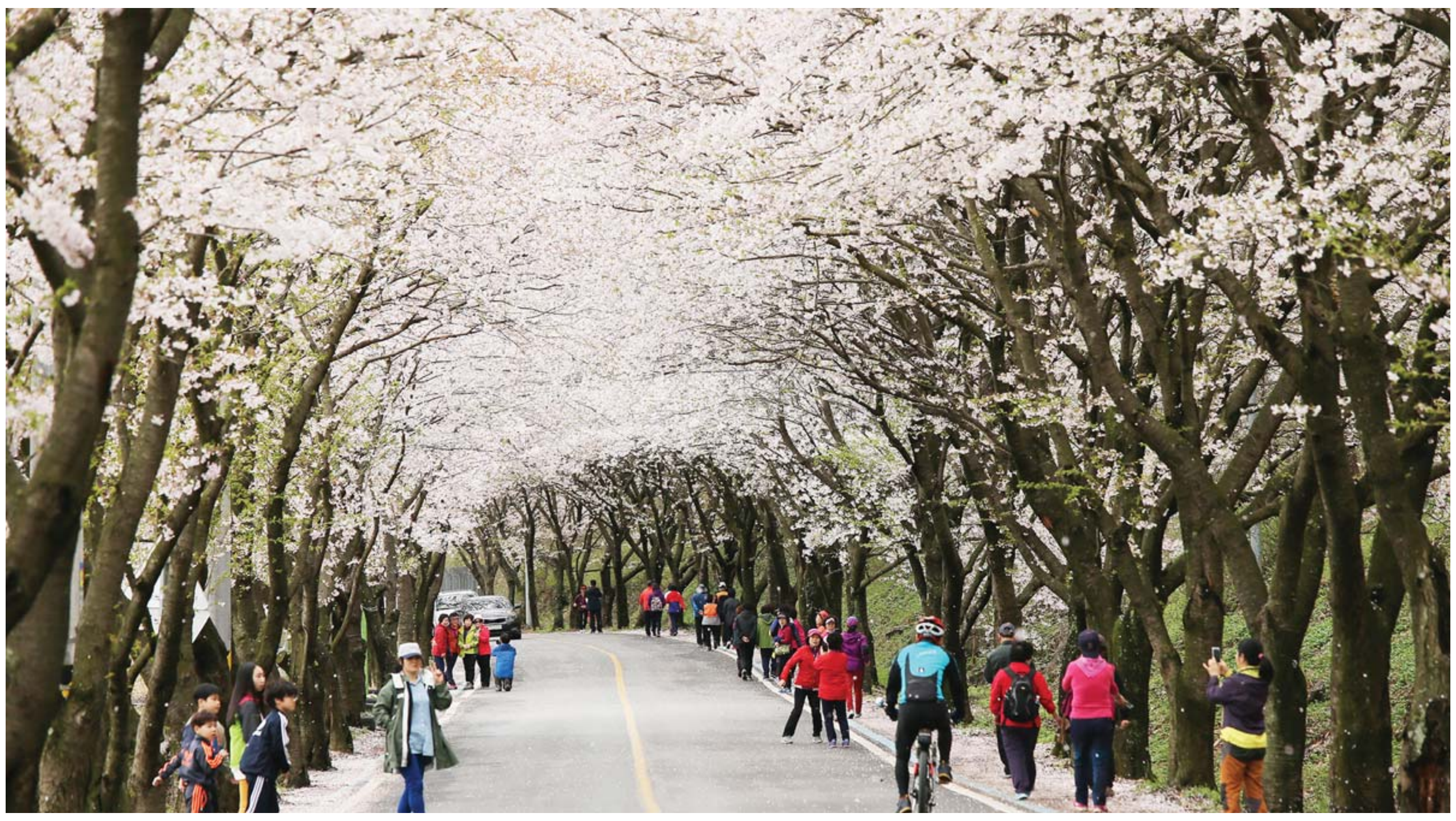
조선대를 비롯해 5개 역량강화 대학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교육부 2단계 평가에서 또다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낙인 효과' 와 함께 학교 명예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고 생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혁신안이 일부 단대 또는 학과 통폐합과 학과 정원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내부 반발에 따른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먹구구식 졸속 구조조정안"이라는 의견과 "짝퉁 단과대"라는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개편안을 놓고는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내부 알력 다툼과 계파 싸움, 구조조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대학 등급 상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호남권 7개 대학 중 3곳 정도 구제될 것으로 예상돼 피말리는 생존 경쟁이 예상된다"며 "교육부 평가와 별개로 내부 잡음을 어떻게 잠재우고 결속을 다질 것인지도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벚꽃터널 이룬 섬진강 100리 벚꽃길 지난달 29일 곡성군과 경계인 구례군 구례읍 논곡마을에서 시작해 문척, 간전, 토지면을 거쳐 경남 하동군 화개면과 구례군 간전면을 잇는 남도대교까지 섬진강따라 형성된 '섬진강 100리 벚꽃길' 에 벚꽃이 활짝 피어 하얀 꽃터널을 이루고 있다.

전남도, 고농도 대기오염 신속 대응체제 구축

대기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 고농도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기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 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전남지역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되는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활환경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시군 측정소별로 과거 자료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 대기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기 개선 정책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대기오염 경보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같은 긴급재난 상황을 온라인(http://air.jihe.go.kr/)에서 도민이 직접 신청해 문자와 팩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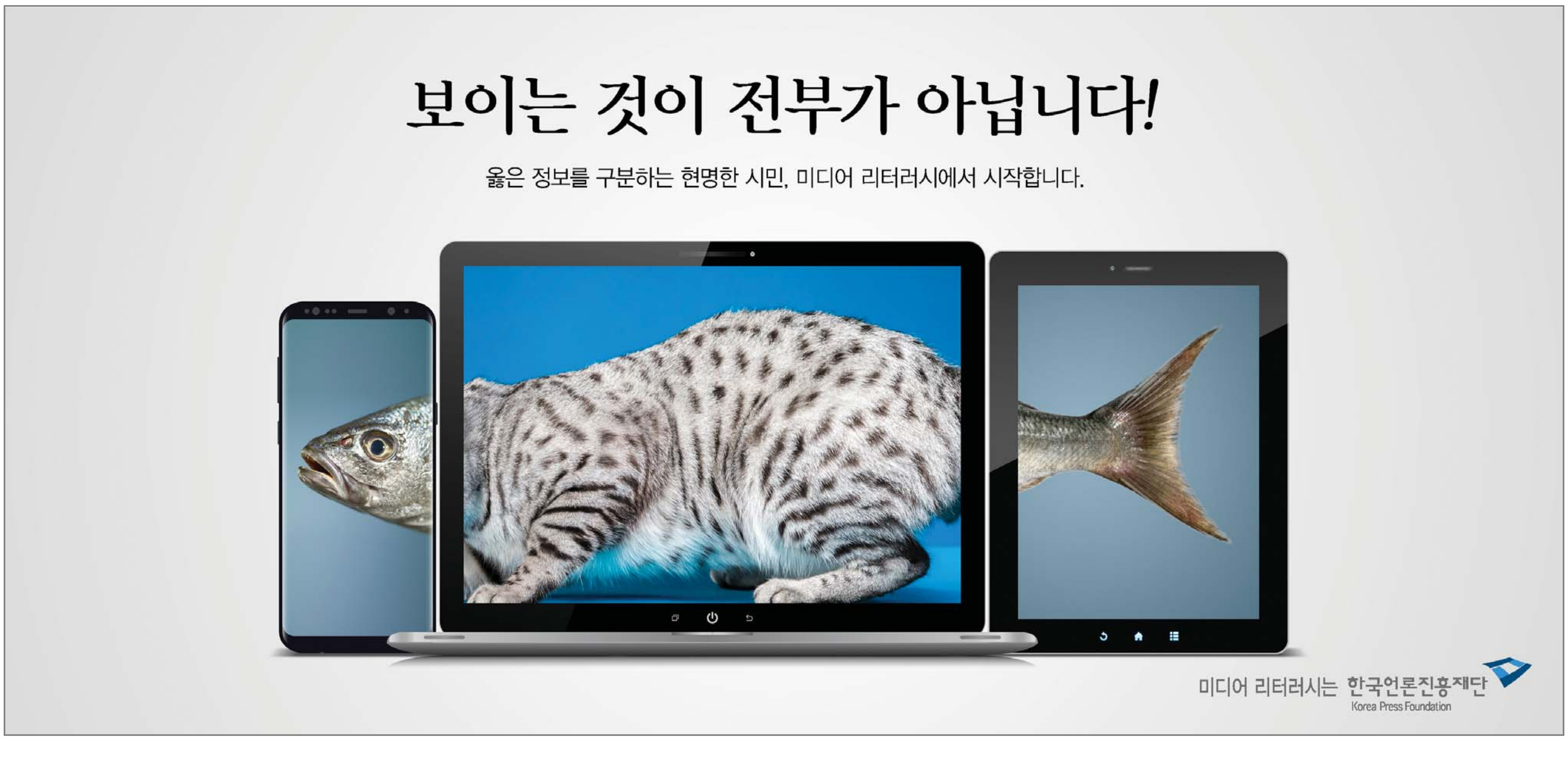
이해훈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지역 대기질 정보 확인과 활용 기능이 대폭 향상됐다"며 "촘촘한 대기질 측정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도 꾸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18개 시군에 33개 도시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과 있다. 올 상반기까지 22개 모든 시군에 37개소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사필귀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